

당정 “원청 책임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 철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성운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급 제한 등 산업법 개정안 임시국회내 처리키로 산재시 원청에 요율 반영·발전부문 통합협의체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 의원은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우 의원은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해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

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울러 우 의원은 “발전부문은 각 사별로 정규직화 논의의 속도가 다르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의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굉장하느니라”며 “사별 논의의 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 통합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경쟁체제 도입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데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두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점차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원청 회사가 산

재요율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왔지만, 이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해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에 요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직접고용·정규직화의 비용문제 등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우 의원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산업안전 개선책 의견 수렴

환노위, 노동·경영계 전문가 공청회...27일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9일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소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환노위 차원의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이 조정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노동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공청회를 열고 이후에 법안을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1일 합의하지 못할 경우 24

일에 고용노동소위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라며 “26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기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당 옮긴 이학재, 정보위원장 반납해야”

민주·평화당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보위원장은 이학재 의원 개인의 몫이 아닌 정당의 몫”이라며 “지난 7월 10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거치면서 여당이 관례로 맡아온 정보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에 배정하기로 합의한 과정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탈당과 함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전례가 없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6년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안전행정부위원장을 사퇴한 사례 등을 설명했다.

그는 “당적을 옮기는 것은 정치인의 선택이지만, 정보위원장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여야 합의의 정신이나 정치 도의에 반한다”며 “한국당 역시 여야 합의정신을 과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에서 물러나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변경한 경우 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에는 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므로 합의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경제 투톱 ‘이기투합’

홍남기 부총리·이주열 한은총재 재정·통화정책 공조키로

재정·통화정책 당국을 이끄는 양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회동, 내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정오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나누는 데 이어 미·중 통상마찰과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기로 했다.

오찬에 앞서 한은을 찾은 홍 부총리는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소비나 투자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나 고용, 분배 지표는 부진하다”며 “대외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해 내년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한 가운데 일차적으로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텐데 재정 역할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재정이나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기재부와 한은 모두 정책 운용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 경제 회생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전대 모드’ 전환

당헌·당규 이달 중 개정...심재철·정우택 등 10여명 거론

최근 현역 의원 21명을 물갈이하는 1차 인적쇄신을 단행한 자유한국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이다.

19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 위원회는 이날 안에 새 지도체제와 선출 방식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유지 ▲순수 집단지도체제 전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 등 3가지 방안에 대한 첫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어 공식·비공식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한 차례 더 의총을 개최, 지도체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당대표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6년 총선 패배 후 당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해 7월 도입한 제도다.

전대는 2개월가량 앞둔 현재 한국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무려 10여명에 달한다. 원내에서는 심재철(5선)·신상진·정우택·정진석·주호영·조경태(이상 4선)·김성태·안상수(이상 3선)·김진태(재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단식 잘 푼건지 회의”

바른미래당 대표...“한국당, 선거제 개혁 따라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놓고 심각하게 거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에 견제구를 날렸다.

또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합의되어야 하고, 최소한 의원정수 증가가 보장되어야

단식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단식을 중단한 게 잘 한 건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수가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의 다음 단계인 선거제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다. 촛불로 향한 한국당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한국당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 조선대 :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림!

2018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천
- 화순읍 이십곡리 대지 860㎡ 광주에서 10분 2억8천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신안군 중도면 대초리 계획관리지역 임·전 5940㎡ 신고 3500 매도3천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7억
-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땅 3044㎡ 도로있음 투자에 양호 3억4천
- 남평읍 상곡리 땅 6608㎡ 주택있음 전원생활 최적 1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기대·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할·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조정가능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칠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장성읍 의원건물 대지 340㎡ 건물 489㎡ 은행2억 임대중임 3억5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물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물 279㎡ 4억5천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룸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질됨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읍 새모텔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감정 30억 매도 2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광주광역시 인구가족복지협의회 광주전남지회

함께하면 든든목아 성공비법

직장난치문화 제로법
직장맘 3대대박을 놓치지 않는 대신 배워 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수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이해에서 양육 책임으로 바뀌기!

육아후수 주의법
서로 육아에 흡수 대신 팔뚝이 딱딱한 한미대 만들기!

직장 가족 이웃

육아대디 지지법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양육, 격려, 응원하기

든든목아 동창법
물고기 육아, 육아 안전 지킴, 나무위키 육아 커뮤니티 만들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